

대학생의 가족기능,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 대학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안성아¹, 오수미², 공정현^{*}
¹한국국제대학교 간호학과, ²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행정학과

The Relationship among Family functioning, Intimacy Risk with the Opposite Sex and Campus Life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Seong-Aha Ahan¹, Su-Mi Oh², Jeong-Hyeon Kong^{1*}

¹Department of Nursing,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²Department of Health Policy & Management, Inj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가족기능,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 대학생활만족의 정도를 파악하고 각 변수 간 상관관계와 대학생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할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7년 5월 11일부터 5월 20일 까지 지방에 소재한 2개의 4년제 종합 대학에 재학 중인 18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20.0을 이용하였으며, t-test, ANOVA,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회귀 분석을 사용하고, 사후분석은 s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가족기능은 5점 만점에 평균 3.07±0.44점이었고,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은 4점 만점에 평균 2.03±0.59, 대학생활만족도 5점 만점에 평균 3.20±0.50이었다. 대학생활만족도는 일반적 특성 중 부모의 경제활동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가족기능이 높을수록,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이 낮을수록 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가족기능의 하위변인인 가족의사소통($\beta=0.341$, $p=.001$), 부모의 경제활동유형($\beta=0.161$, $p=.007$)이었고 총 설명력은 13.1%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족기능 중 가족의사소통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family function, intimacy risk with the opposite sex, and campus life satisfaction among college students. A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11, 2017 to May 20, 2017 b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participants were 180 college students at two colleges in J-city.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one way ANOVA,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20.0. The mean scores were as follows: family function 3.07±0.44(5 points), intimacy risk with the opposite sex 2.03±0.59(4 points), and campus life satisfaction 3.20±0.50(5 points).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family function, intimacy risk with the opposite sex, and campus life satisfaction variabl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factors influencing campus life satisfaction were family communication($\beta=0.341$, $p=.001$) and parental economic activity type($\beta=0.161$, $p=.007$). The explanation power of this regression model was 13.1%. Thes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effective campus life satisfaction should be developed by including improvement of family community of family function

Keywords : Campus Life Satisfaction, College students, Family function, Intimacy Opposite Sex, Risk

본 논문은 한국국제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Jeong-Hyeon Kong(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Tel: +82-55-751-7913 email: wjdgus0063@hanmai.net

Received August 30, 2017

Revised (1st September 8, 2017, 2nd September 15, 2017)

Accepted October 13, 2017

Published October 31, 201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발달단계상 청소년 후기에 속하며, 대학생 시기는 수동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성인으로서 인생관을 확립하는 시기로, 대학생 시기의 인격 특성 및 태도는 성인기의 성패의 지표가 된다[1,2]. 따라서 대학생은 발달적 과업의 성취를 위해 대학이라는 환경에 일차적으로 잘 적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학생활 적응은 대학생활을 만족스럽게 보내는 것과 직결되며[3] 이러한 대학생활만족도는 대학생의 학업중단 의도를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4]. 그러므로 최근 학력연구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전국의 대학들은 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인간의 인격형성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학생은 대학생의 가족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대학 내에서도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할 수 있게 되어 대학생활 적응도를 높게 된다 [5,6]. 실제로 부모의 갈등에 자주 노출된 자녀일수록 이성과의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7] 교제중인 상대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불안정한 교제 관계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8]. 자립을 성취함과 동시에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해야하는 청년기 발달과업이 가족의 불안과 중복되어 커플관계의 건강한 친밀감 발달에 장애가 된다[8]. 그러므로 대학생의 가족기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학생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대학생의 84%가 이성교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10]. 이성과의 친밀감 형성은 성인초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의 하나로 이성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 능력은 성인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11]. 그러나 미혼의 두 남녀가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정서적·지적으로 개방하고 지지적인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갖는 것을 ‘이성과의 친밀감 형성 위험’이라고 정의한다[7]. 이러한 이성과의 친밀감 형성 위험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특히 사교성이 필요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12]. 그러므로 건강한 이성과의 친밀감은 대학생의 인격 성숙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13] 대학생의 이성에 대한 친밀감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생의 가족기능,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은 대학생활 만족도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변수로 스포츠동아리 활동 참가,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여가동기, 여가태도 등[14-17]으로 주로 개인적인 행동적, 심리적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가족기능과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의 관계에 관한 연구[8]가 있었으며, 가족기능,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 및 대학생활만족도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에 가족기능, 이성과의 친밀감이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가족기능,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 대학생활만족도의 정도와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전략 및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 대학생의 가족기능,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 대학생활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 대학생활만족도의 정도를 확인한다.
- 대학생의 가족기능,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 대학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가족기능,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 및 대학생활만족도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대상자는 J시의 소재 4년제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1학년~4학년을 대상으로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5월 11일부터 5월 20일 까지 약 10일간 진행되었으며, 각 학교 재학생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자가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해 알리고 연구에 동의하는 사전 동의서를 받아 연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만 설문지를 배부하도록 하고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 응답시간은 20~2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설문지 중 무응답이 많거나 자료처리의 부적절한 설문지 20부를 제외한 180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수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예측변수 8개, 효과크기 .02, 유의수준 .05, 검정력 .95으로 설정하여 대상자수를 산출한 결과 153명이었다. 중도탈락률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학생 2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설문지 20부를 제외한 180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수는 자료 분석에 필요한 대상자 수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가족기능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Olson 등 [18]이 개발한 FACES IV(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V)를 Ahn[19]이 수정·보완한 가족기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총33문항으로 가족 의사소통 8문항, 가족유대감 4문항, 가족단절 9문항, 가족밀착 4문항, 가족혼란 8문항으로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이 긍정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가족유대감이 높고, 가족단절이 낮고, 가족밀착이 높고, 가족혼란이 낮은 것을 나타낸다. Ahn[19]의 연구에서는 가족의사소통(family communication) Cronbach’s α .87, 가족유대감(family cohesion) Cronbach’s α .74, 가족단절(family disengaged) Cronbach’s α .84, 가족밀착(family enmeshment) Cronbach’s α .52, 가족혼란(family chaotic) Cronbach’s α .80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도구 전체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4이었으며,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가족의사소통 Cronbach’s α .89, 가족유대감 Cronbach’s α .81, 가족단절 Cronbach’s α .78, 가족밀착 Cronbach’s α .54, 가족혼란Cronbach’s α .84이었다.

2.1.2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

본 연구에서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Pilkington 과 Richardson[20]이 개발한 Risk in Intimacy Inventory를 Chung[21]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성과의 친밀한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이성에 대한 신뢰가 낮으며, 사람에 대하여 주저하는 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ung[21]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5이었다.

2.1.3 대학생생활만족도

본 연구에서 대학생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Han[22]의 ‘대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연구’를 Hwang[23]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wang[2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87이었다.

2.4 자료 분석 방법

본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살펴보고,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 대학생생활만족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고 사후검정은 scheffe 검정을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가족기능,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 대학생 생활만족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대학생의 대학생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생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변수와 상관관계가 있었던 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대학생의 성별은 여학생이 52.7%(95명)로 많았으며, 학년별로는 2학년이 26.9%(48명), 3학년 25.4%(46명), 1학년 25%(45명), 4학년이 22.7%(41명)로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성적은 중간이 63.1%(114명) 차지하였다. 부모의 경제활동 유형은 맞벌이 부모가 66.2%(119명)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경제 상태는 62.7%(113명)가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80)			
Variable	Categories	n	%
Sex	Male	85	47.3
	Female	95	52.7
Grade	1st	45	25.0
	2nd	48	26.9
	3rd	46	25.4
	4th	41	22.7
Academic score	Upper	57	31.9
	Middle	114	63.1
	Low	9	5.0
Parent's type of economic activity	Working couple	119	66.2
	Father	42	23.4
	Mother	17	9.6
	No economic activity	2	0.8
Economic status	Upper	40	22.3
	Middle	113	62.7
	Low	27	15.0

3.2 대학생의 가족기능,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 대학생활만족도의 정도

대학생의 가족기능,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 대학생활만족도의 정도는 <Table 2> 와 같다. 대상자의 가족기능은 평균평점 4점 만점에 3.07점이었고, 하부영역으로 가족의사소통 3.0, 가족유대감 3.12, 가족단절 3.25, 가족밀착 2.76, 가족혼란 3.18점이었다.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은 4점 만점 2.03점, 대학생활만족도 평균평점 5점 만점 3.20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The degree of family functioning, Intimacy with the opposite sex and campus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Variable	Min	Max	Mean±SD
Family functioning	1.32	3.95	3.07±0.44
Intimacy with the opposite sex	1.00	4.00	2.03±0.59
campus life satisfaction	1.59	5.00	3.20±0.50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가족기능,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 대학생활만족도 차이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 대학생활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은 성별($t=-2.52, p=.012$), 경제상태($F=3.66, p=.027$)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분석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이 높았고, 경제 상태가 '상'인 집단이 '중간' 집단보다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이 더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만족도는 부모의 경제활동유형($F=3.91, p=.009$)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사후 분석한 결과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하는 집단이 맞벌이 경제활동을 하는 집단보다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았다.

3.4 대학생의 가족기능,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 대학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 관련된 변인들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분석 결과, 대학생활만족도와 대학생의 가족기능의 하위영역인 가족의사소통, 가족유대감, 가족단절, 가족밀착, 가족혼란과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는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r=.140, p<.05$), 가족단절($r=.204, p<.01$), 가족혼란($r=.262, p<.01$)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가족의사소통($r=.292, p<.01$), 가족유대감($r=.216, p<.01$), 가족밀착($r=.161, p<.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은 가족의사소통($r=-.169, p<.01$), 가족유대감($r=-.233, p<.01$), 가족밀착($r=-.129, p<.05$)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가족단절($r=.220, p<.01$), 가족혼란($r=.310, p<.01$)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가족의사소통은 가족 유대감($r=.817,$

$p < .01$), 가족밀착($r = .502, p < .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가족단절($r = -.653, p < .01$), 가족혼란($r = -.673, p < .01$)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가족 유대감은 가족단절($r = -.713, p < .01$), 가족혼란($r = -.758, p < .01$)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가족밀착($r = .502, p < .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가족단절은 가족밀착($r = -.494, p < .01$)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가족혼란($r = .800, p < .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가족밀착은 가족혼란($r = -.466, p < .01$)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본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대학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부모의 경제활동형태와 대학생활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 가족의사소통, 가족유대감, 가족단절, 가족밀착, 가족혼란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명목변수는 가변수 처리하여 분석하였다<Table 5>. 회귀분석을 위하여 다중공선성, 잔차 및 특이 값을 진단하였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904로 자기상관이 없고,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지수는 가족기능의 하위변인이 .004~.176,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 .004로 공차한계가 1.0이하이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가족기능 1.304~4.100,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

1.129, 경제활동 1.017으로 나타나 기준인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 = 5.390, p < .001$), 모형의 설명력은 13.1%이었다. 대학생활만족도에 주된 영향요인은 가족의사소통($\beta = .341, p = .001$)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경제활동유형($\beta = .161, p = .007$)이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기능,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 및 대학생활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여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가족기능 정도는 4점 만점에 3.07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학생으로 대상으로 한 Kim과 Jung[24]의 연구결과 2.1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족기능은 대학생의 스트레스 지각 정도를 낮춰주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25]. 많은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 후 선·후배, 동기생, 교수들과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긍정적인 인간관계는 대학생활 적응에 흥미를 느끼게 해 준다. 그러나 대학생활 동안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신입생 때부터 가족기능의 정도를 파악하여, 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Table 3. family functioning, Intimacy with the opposite sex and campus life satisfaction level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0)

Characteristics	Family functioning			Intimacy with the opposite sex			Campus life satisfaction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Sex	Male	2.98±0.53	-1.82	.071	1.87±0.67	-2.52	.012	3.13±0.52	-1.40	.163
	Female	3.10±0.41			2.08±0.55			3.23±0.50		
Grade	1st	3.15±0.45 ^a	3.08	.028	2.02±0.54	0.12	.948	3.30±0.60	1.93	.125
	2nd	2.98±0.45 ^b			2.04±0.57			3.11±0.43		
	3rd	3.18±0.40 ^a			1.98±0.64			3.22±0.52		
	4th	3.13±0.42 ^a			2.05±0.63			3.23±0.52		
Academic score	Upper	3.07±0.47	0.18	.834	2.05±0.69	0.12	.887	3.19±0.49	1.18	.309
	Middle	3.10±0.42			2.02±0.52			3.19±0.52		
	Low	3.06±0.50			1.98±0.76			3.41±0.46		
Parent's type of economic activity	Working couple	3.06±0.47	0.49	.690	2.08±0.56	1.99	.116	3.17±0.50 ^a	3.91	.009 [†]
	Father	3.06±0.37			1.91±0.59			3.17±0.45 ^b		
	Mother	3.16±0.42			1.91±0.70			3.49±0.62 ^c		
	No economic activity	2.89±0.08			2.38±0.18			3.71±0.00 ^d		
Economic status	Upper	3.05±0.48	0.24	.785	1.85±0.59 ^a	3.66	.027 [†]	3.19±0.51	0.42	.656
	Middle	3.09±0.42			2.08±0.56 ^b			3.22±0.50		
	Low	3.02±0.49			2.07±0.65 ^c			3.14±0.54		

† ; Sheffé test

하고, 선·후배, 동기생, 교수와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학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은 4점 만점에 평균 2.03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ung과 Kim[7]의 연구결과 2.06점과 비슷하였다. 이성과의 친밀감 형성은 성인초기의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로, 성인초기에 해당되는 대학생은 친구나 이성과의 관계에서 친밀감 형성이라는 발달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26]. 그러나 두 남녀가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정서적·지적으로 개방적이고 지지적인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갖게 되면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이 된다[7]. 그러므로 대학생 시기에 적합한 이성관계 증진을 위해 상호간의 친밀감을 향상시키고, 성숙된 커플이 될 수 있도록, 대학생의 욕구와 요구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이성과의 친밀감위험이 높았고, 경제상태가 ‘상’인 집단이 ‘중간’ 집단보다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이 더 높았다. 이는 이성교제 중인 커플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8]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난 것과 상반되는 결과이며, 이는 성인초기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13]에서 이성과의 친밀감위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여 이에 대한 추후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20점으로 중간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Suk와

Cho[27]의 연구결과 3.29점과 유사하였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곳이며, 대학생들의 대학생활만족은 학업, 자신감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28]. 실제로,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효과까지 나타나게 된다[29]. 선행연구에서 대학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대체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여 그에 따라 만족도도 높아지게 되고[30], 다양한 동아리활동은 대학생이 학교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반적인 대학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27]. 또한, 교수와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대학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31].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그러므로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과 다양한 동아리 활동 지원, 선·후배 멘토링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위한 학과 및 대학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만족도는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하는 집단이 맞벌이 경제활동을 하는 집단보다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대학생은 진로 및 취업, 대인관계 등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므로 대학생활만족도는 대학생들의 학업활동, 각종 문제에 대한 태도, 교수와 학교에 대한 신뢰, 자신의 장래문제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32]. 그러므로 대학에서는 대학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학습지원 체계를 통한 학업성적 향상,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 다양한 진로 상담 지원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만족도는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

Table 4. The Correlations of family functioning, couple relationship attitudes and campus life satisfaction

(n=180)

Variables	Campus life satisfaction	Intimacy with the opposite sex	Family communication	Family cohesion	Family disengaged	Family enmeshment	Family chaotic
Campus life satisfaction	1						
Intimacy with the opposite sex	-.140*	1					
Family communication	.292**	-.169**	1				
Family cohesion	.216**	-.233**	.817**	1			
Family disengaged	-.204**	.220**	-.653**	-.713**	1		
Family enmeshment	.161**	-.129*	.502**	.502**	-.494**	1	
Family chaotic	-.262**	.310**	-.673**	-.758**	.800**	-.466**	1

*; p<.01, *; p<.05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campus life satisfaction

Variable	B	SE	β	t	P	VIF
(constant)	2.381	.291		8.173	.000	
Family communication	.295	.092	.341	3.221	.001	3.230
Parent's type of economic activity [*]	.116	.043	.161	2.705	.007	1.017
F=5.390, p<.001, R2=.131, Adj-R2=.107						

^{*} Dummy variable: Parent's type of economic activity(Working couple=0, Father, Mother, No economic activity=1)

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가족기능의 하위영역 가족 의사소통, 가족유대감, 가족밀착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가족단절, 가족혼란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이 낮을수록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았고, 가족기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성인기 초기는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하려는 시기로 가족원간으로부터 친밀한 관계를 경험한 대학생은 이성과의 친밀한 관계도 유지하게 된다 [8]. 그러므로 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가족기능의 하위변인인 가족의사소통과 경제활동형태(어머니 기준)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13.1%이었다. 대학생활만족도는 첫 직장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이 졸업 후 직장생활에서도 높은 만족감을 나타낸다[33,34]. 이와 같이 가족 의사소통은 가족기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이며[35], 이러한 부모와 자녀간의 개방형의사소통은 가족 간의 정서적 결속력과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가족의 만족도를 높인다[36]. 한편, 어머니의 경제활동은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제활동형태 조사 시 한 부모 여부를 조사를 하지 않아 추후 한 부모 여부를 포함하여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대학생의 원만한 가족 관계 유지를 위해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교과과정 및 비교과 활동에 적극 반영할 필요하며, 향후 대학생의 의사소통 방법별로 대학생활의 만족도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은 대학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이 대학생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이성관계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의 하나인 친밀감이 충족될수록 개인의 안녕감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결과[37]를 볼 때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족기능의 하위 변인 중 가족의사소통과 어머니 경제활동형태는 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재 방안에서 가족의사소통을 향상시키고, 부모경제활동유형에 맞는 대학생활만족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연구의 제한점으로 본 연구는 일개 지역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가족기능,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이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만족도는 부모의 경제활동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대학생활만족도와 대학생의 가족기능의 하위영역인 가족의사소통, 가족유대감, 가족단절, 가족밀착, 가족혼란과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활만족도에 주된 영향요인은 가족기능의 하위변인인 가족의사소통, 경제활동유형 순으로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설명력은 13.1%이었다. 하지만 이성과의 친밀감 위험이 대학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가족기능의 하위변인 중 가족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교

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이성과의 친밀감 위협이 대학생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대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연구를 통해 이성과의 친밀감 위협이 대학생생활 만족도의 예측요인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하는 연구결과와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J시에 소재한 2개의 대학에 재학 중인 대상자를 임의 표출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확대 적용하는데 제한점이 따른다. 그러므로 지역 확대뿐 아니라 임의 표출이 아닌 무작위 추출법을 이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대학생활만족도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뒤 그 효과를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Y. S. Ahn, "The Effects of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Olson's Circumplex Model for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1999.
- [2] E. J. Oh, G. S. Yoo, "The Effects of the Family Function and Social Capital on Antisocial Personality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8, no. 1, pp. 93-117, 2013.
- [3] M. J. Park, Y. L. Ham, D. N. Oh, "Levels and their Correlations of Decision-Making-Competency, Adjustment to College Life, Satisfaction to College Life in Freshme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2, no. 4, pp. 327-337, 2012.
DOI: <https://doi.org/10.5392/JKCA.2012.12.04.327>
- [4] K. H. Kim, "An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Local University Students' Halting Their Academic Studies and Satisfaction With Their Campus Lif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1, no. 8, pp. 378-387, 2011.
DOI: <https://doi.org/10.5392/JKCA.2011.11.8.378>
- [5] J. A. Song, J. S. Jang, "A Research about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 for a Correlation between Community College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s and Family Function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5, no. 1, pp. 119-144, 2010.
- [6] S. J. Kwon, H. J. Lee, "Effect of Family Function on the School Life Adaptati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identit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7, pp. 188-195, 2014.
DOI: <https://doi.org/10.5392/JKCA.2014.14.07.188>
- [7] C. Y. Chung, J. Y. Kim, "The Influence of Marital Conflict on Risk in Intimacy and Sexual Behaviors with the Opposite Sex of Early Adul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12, pp. 70-103, 2005.
- [8] J. H. Cha, Y. J. Chun, "Relationship between the Health of the Family of Origin and Intimacy among the Dating Couple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vol. 7, no. 1, pp. 39-57, 2002.
- [9] S. H. Cho, A. M. Cho, "A Hermeneutics Phenomenological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Dating and Sexu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9, no. 5, pp. 137-160, 2012.
- [10] J. H. Kang, "The Relationship among Types of Dating, Emotional Experience, Conflict Resolving Strategies an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2011
- [11] E. H. Erikson, "Growth and Crises of the Healthy Personality", In D. Kluckhohn, H. Murray, D. Schneider, (Eds), *Personality in Nature, Society, and Culture*, NY: Alfred A. Knopf.
- [12] B. Y. Na, H. J. Chung,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with Parents, Self-Differentiation and Fear of Intimacy amo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6, no. 2, pp. 155-168, 2008.
- [13] J. Y. Choi, Y. S. Choi, "The Impact of the Self-Differentiation and Self-Disclosure of Unmarried Persons in Early Adulthood on Their Intimacy with the Opposite Sex",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vol. 19, no. 2, pp. 227-244, 2010.
DOI: <https://doi.org/10.5934/KJHE.2010.19.2.227>
- [14] H. S. Kim, Y. S. Park, "Differences in Campus Life Satisfaction and Self-Achievement based on Sport Club Participation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vol. 34, no. 3, pp. 43-54, 2010.
- [15] J. Y. Lim, G. J. Yoon, "The Effects of Ego-Resilience, School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Motivation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vol. 18, no. 3, pp. 113-130, 2013.
- [16] S. H. Sok, D. S. Shin, H. Oh, H. M. Kim, K. B. Kim, "A Study of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11, no. 1, pp. 51-57, 2005.
- [17] S. R. Ha, "The Relationships among Leisure Participation Motivation, Leisure Satisfaction and Athletes' Life Satisfaction in Korean Women Basketball Athletes", *The Korean Journal of Sport*, vol. 11, no. 4, pp. 23-39, 2013.
- [18] D. H. Olson, C. S. Russel, D. H. Sprenkle, "Circumf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IV: Theoretical update", *Fam Process*, vol. 22, no. 1, pp. 85-98, 1983.
- [19] S. Y. Ahn, "Family Functioning, Attachment Styles, and Attitude of Marriage & Family among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 Ju, 2012.
- [20] C. J. Pilkington, D. R. Ricardson, "Perceptions of Risk in Intimac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5, pp. 503-508, 1988.
DOI: <https://doi.org/10.1177/0265407588054006>

[21] Y. K. Chung, "The Influence of Marital Conflict on Intimacy with the Opposite Sex of Early Adult: Moder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Self-disclosu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onsei University, Seoul, 2004.

[22] E. S. Han, "The Research on the College-life Satisfaction of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University of Suwon, Hwaseong, 2008.

[23] Y. K. Hwang,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Campus life satisfaction, Stress perception and Stress coping style of rural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Gimhae, 2008.

[24] H. J. Kim, M. A. Jung, "Effect of Family Function and Self-Efficacy on Suicidal Ideation in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6, no. 1, pp. 43-50, 2010.
DOI: <https://doi.org/10.4040/jkan.2010.40.1.43>

[25] J. Y. Ha, "Impact of Self-extreme, Family Function and Social Support on Stress in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7, no. 2, pp. 259-266, 2010.

[26] H. K. Kwon, J. H. Jang, Y. M. Kwon, "The Relationship and Validity Study of the Romantic Relationship Behavior Scale(RRB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 10, no. 4, 497-524, 2005.

[27] M. S. Suk, O. S. Cho, "The Effects of Extracurricular Club activity Satisfaction on Campus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3, no. 12, pp. 481-508, 2016.
DOI: <https://doi.org/10.21509/KJYS.2016.12.23.12.481>

[28] M. H. Kim, Y. J. Kim,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the Self-leadership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Arts on Their Learning Effects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Design Culture, vol. 22, no. 4, pp. 25-36, 2016.

[29] H. D. Kim, "Women College Graduates and Job Satisfaction: Interacting Effects of Job Readines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30, no. 4, pp. 241-258, 2011.

[30] K. J. Choi, "A Study on the Satisfaction Level and the Campus Life Adaptation of Transfer Students to Enhance the Participation of ABEEK",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vol. 14, no. 2, pp. 3-12, 2011.
DOI: <https://doi.org/10.18108/jeer.2011.14.2.3>

[31] C. R. Jeong, I. B. Moon, Y. K. Kim, S. W. Choi, "The Effects of Mentoring Program by Professor on Adaptation to Campus Life and Satisfaction for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9, pp. 613-621, 2014.
DOI: <https://doi.org/10.5392/JKCA.2014.14.09.613>

[32] J. G. Kim, H. G. Seong, C. W. Lee, K. J. Park, "Student Life Satisfaction: Components and Predictors",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 4, no. 1, pp. 154-167, 1991.

[33] J. Y. Ju, S. Y. Han,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First Job Satisfaction of Young College Graduates", Th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vol. 13, no. 1, pp. 193-212, 2015.

[34] R. M. Ryan, E. L. Deci,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vol. 55, no. 1, pp. 68-78, 2000.
DOI: <https://doi.org/10.1037/0003-066X.55.1.68>

[35] S. S. Song,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Solution Focused Therapy Theory in Korea: The Use of Language Game Concept for a Korean Family Case", Korean Journal of Family, vol. 8, no. 1, pp. 87-112, 2000.

[36] J. C. Heo, "A Study on the Effect of Family Function on Self-identity by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 10, no. 3, pp. 123-147, 2008.

[37] H. Patrick, C. R. Knee, A. Canevello, C. Lonsbary, "The role of need fulfillment in relationship functioning and well-being: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2, no. 3, pp. 434-457, 2007.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92.3.434>

안 성 아(Seong-Ah Ahn)

[정회원]



- 2006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한국국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성인 및 재활간호, 보건교육분야

오 수 미(Su-Mi Oh)

[정회원]



- 2014년 8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16년 3월 ~ 현재 : 인제대학교 대학원 보건행정학과(보건학 박사 재학 중)
- 2014년 3월 ~ 현재 :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오래교수
- 2015년 1월 ~ 현재 : 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강사

<관심분야>

호스피스, 보건교육, 성인간호

공 정 현(Jeong-Hyeon Kong)

[정회원]



- 2012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9월 ~ 현재 : 한국국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스트레스, 심리적 외상